자기계발 숨통트기

(행3:11~26)

11.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 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15.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자기계발 숨통트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자기계발 숨통트기'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문화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는 유행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중강연', 대중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이 대중강연에 공중파 TV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명사들을 불러서 강연을 듣는 것을 정규 수업으로 아예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강연에 불려 다니는 스타강사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어요.
한번 강의하는 데에 3, 4백만 원씩 받습니다.
저도 좀 그런 강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내 대중강연의 경제성을 따져보면 시장규모가 2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곳에 원하는 강사들을 소개해주는 전문업체가 10군데 이상이 생겨났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이 왜 대중강연에 열광하게 되었느냐?
기자가 대중강연에 참석했다가 나온 한 청년을 붙잡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한 말이 모든 대중강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꿈을 찾았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해서 강연장에 왔습니다, 꿈을 찾자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강연을 듣다보니 의욕이 솟아납니다.'

아, 이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이전에 어떻게 꿈을 꾸었으며, 꿈을 어떻게 찾아냈고, 왜 하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꿈꾸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들을 들으면서 내 의욕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건 듣는 사람의 입장이었고, 대중강연을 주도해가는 유명한 강사들의 강연내용을 대변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김 미경이라는 분의 모토처럼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모든 대중강연의 주제라고 보아도 되는데, 그 내용은 '줄기차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가 모토입니다, 모든 강연에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꿈은 결핍이 이룬다' 즉 내가 부족한 것을 느낄 때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진리는 5천 년간 바뀐 적이 없다, 누구나 스물다섯 살 혹은 서른 살 이후 열심히 살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야 정상이다, 원하는 일이 있으면 4시 30분에 일어나라! 그때 일어나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김 미경 씨의 모든 강연의 내용입니다.

아,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대중강연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이후와 이전을 비교해보면 성공하는 사람의 숫자가 눈곱만큼도 더 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강연의 핵심내용이 자기계발입니다.

‘4시 반에 일어나라, 꿈을 가져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 무엇을 해라!’ 핵심이 자기계발이에요, 자기계발에 근거한 나의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의 원칙을 세 가지 네 가지 열 가지 아무리 강연 속에서 감명 깊게 받아도 그 원칙대로 해서 자기를 계발하는 사람이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이유는 모든 인간 중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계발 강연의 내용은 결국은 새 시대의 율법입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무얼 해라, 무얼 해라… 꿈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열정이라는 게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실제로 하지도 못하면서도 왜 이렇게 대중강연에 몰리느냐?
‘숨통트기’라는 겁니다.

지금 막막해요.
대중강연이 청년들 부흥회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청년들의 자기 찾기 부흥회라고.
왜 그렇게 대중강연에 쫓아다닙니까?
취직이 안 되고, 미래가 막막합니다.
그런데 대중강연을 듣다보면, 아까 의욕이 솟아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먼 미래의 계발된 자기의 모습과 그 계발된 자기의 모습에 근거된 성공을 꿈꿀 수가 있게 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지금의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숨통이 트인다는 얘깁니다.
숨통이 트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간다고 먼 미래에 성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강연대로 하지도 못해요,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가는 이유는 지금 숨통을 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강연이 갖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힐링 효과에요, 치료효과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숨통이 터야 돼요, 안 그러면 자살하고 말지요, 막막하고 막혀있기만 한다면.
육체가 숨을 쉬듯이 마음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마음의 숨통이 트여야 사람이 자살을 안 해요, 우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숨통이 트여야 살 만한 의욕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숨통트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고 했잖아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나프쉬크시스'인데 이 말은 '아나'라고 하는 접두어와 '프쉬코'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아나'라는 말은 영어로 upwards, '위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쉬코'라는 말은 breathe, 호흡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프쉬코'라고 하는 단어는 'to breathe upwards', 위를 향하여 호흡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숨통이 트이는데, 위를 향해서 숨통이 트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숨통이 터진다는 얘깁니다.

자, 대중강연을 들으러 가는 사람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먼 미래의 자기의 성공적인 모습을 꿈꾸게 되면서 지금의 막막함과 답답함과 좌절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이것을 방향으로 말한다면 forwards, 앞을 향하여 숨통이 트인 거예요.
이렇게 치면 숨통트기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대중강연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계발의 미래를 꿈꾸면서 계발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to breathe forwards, 앞을 향하여 숨통이 트이는데, 은퇴하신 분들이나 대부분의 노인들을 보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숨통이 트입니다.
은퇴해서 돈 못 벌어온다고 이제는 폐물 취급하면서 아내가 밥도 잘 안 해줍니다, 과일도 잘 안 깎아줍니다, 얘들도 무시합니다, 그럴 때 답답합니다.
이때, to breathe backwards, 뒤를 돌아보면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이러이러 했었는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잘나간 적이 있었지!' 옛날을 회상하면서 숨통이 트여요.
또, to breathe sidewards, 옆으로 숨통이 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 같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든지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주어지고, 함께 나가자고 하는 격려가 주어지면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upwards, 위를 향하여 숨통이 터진다는 얘깁니다.
위를 향해 숨통이 트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계발을 쫓아가는 대중강연에 참석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위를 향해서 숨을 쉬면서 위쪽으로 숨통을 트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계발, 인생의 시간의 미래를 향하는 앞으로 숨통을 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정 반대의 마음상태로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좋아서 날뛰면서 정신을 놓고 있다가,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게 될 때 꽉 붙잡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인 것을 다들 알고 있어요, 당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앉은뱅이였던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베드로를 붙잡으니까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공경과 존경하는 마음, 저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 몰려든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이러지 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의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관심하느냐?'
아, 이게 자기계발과 정면으로 맞선다는 거예요.
자기계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 개인의 능력과 내 개인의 힘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과 같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진 것처럼 많은 세간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계발에 몸을 바치려고 대중강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나의 힘을 기르자, 내 개인의 능력과 에너지를 키우자,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못하는 업적을 세우자,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내게 쏠리게 해서 나의

부가가치를 높여가자!
이게 바로 자기계발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당신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엄청난 일이 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내게 쏠려있는 관심과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어디로 돌립니까?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to breathe upwards, 위를 향하여 호흡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계발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예수계발이 목적인 거예요.
자기계발은 미래, 먼 앞날, 시간의 평면의 앞쪽에서 계발된 자기의 모습을 꿈꾸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지만 숨통을 트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위를 향해서 숨 쉬는 사람들의 꿈은 위에 계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발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를 향하여 호흡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계발은 내가 훌륭한 모습으로 미래에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위를 향하여 숨 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발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 예수님 앞이라는 건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위를 향하여 호흡할 수 있게끔 된다는 얘깁니다.
마치 자기계발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앞에서 계발된 자기의 모습을 꿈꾸면서 그것으로부터 숨을 쉬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위를 향하여 숨을 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를 향하여 숨을 쉬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해도 숨통이 위를 향해 뚫리면서 이 지구의 답답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숨통이 탁 트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 예수이름을 믿는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의 경건과 나의 힘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이름을 믿음으로써 된 것이다' 그 예수가 누구냐 하면 또 다시 반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자, 어떻게 위를 향하여 호흡을 할까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라는 얘기는 이름이 가리키는 예수라고 하는 실제 인물에 마음을 두라는 얘깁니다.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인물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예수이름을 믿는 거예요.
실제 인물에게 마음을 안 두고 이름을 부를 때는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이름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예수님의 실제 인물 되심에 마음을 두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숨통이 다 막혀요, 미래를 향한 나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sidewards, 옆쪽으로 숨통이 트여질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십자가에 같이 달릴 때.
내 과거,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to breathe backwards.
과거로의 숨통이 막히고 미래로의 숨통이 막히고, 좌우 측면으로 숨통이 막혀버립니다.
그럴 때에 위쪽으로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앞을 향하여, 옆을 향하여, 뒤를 향하여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의 숨통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의 숨통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벽을 바람처럼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오순절에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고 지금 베드로가 40년 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숨을 내쉰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downwards, 아래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숨을 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앞으로 숨통 트기, 뒤로 숨통 트기, 옆으로 숨통 트기를 우리 스스로 다 끊어버립니다.

그럴 때 위로 숨통이 트이는데, 위로 숨통이 트여서 우리 마음의 코가 위를 향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래를 보시면서 위를 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도 숨통이 트이시면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지상의 평면상에서 앞뒤좌우의 모든 숨통이 주님에 의해서 끊어지고, 그러니까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잘된다고 숨통이 트여갖고는 위로 숨통이 열리지 않습니다.
친구 때문에, 내 과거가 훌륭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회상 속에서 숨통이 트여서는 위로 숨통이 열리지 않아요.
내 인생의 미래를 꿈꾸면서 숨통을 열어갖고는 위로 숨통이 열리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이 지상의 네 가지 방향으로의 모든 숨통이 막혀지고 끊어져야 돼요.
그때 위로 숨통이 열리고 to breathe upwards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숨통을 여시면서 downwards breath, 아래로 향하여 숨을 내쉴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확 들어오시면서 천국의 천사들이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이 바로 우리의 느낌이 된다는 얘깁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의 확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일이 자기계발이 아니라 예수계발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40년 된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자기계발의 실현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을 통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발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계발이 목적이고, 예수계발이 이루어지려면 위를 향해 숨통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계발 숨통트기는 예수계발 숨통트기와 정면으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계발을 목적으로 십자가 붙잡고 지상의 모든 네 방면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위로 숨통을 열어서 정말 하늘의 기운으로 숨통이 탁 트이고, 아래로 향하여 내쉬는 하나님아버지의 숨을 통하여 성령 받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자기계발의 미래적 숨통트기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과거적 숨통트기도 끊게 하시고, 좌우로 향한 숨통트기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위로만 숨통이 열리게 하시며, 그리

하여 하나님이 아래를 향하여 숨을 내쉬는 그 숨길을 받아 성령에 휩싸이고 장악되어서 예수 계발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